

중국어 한글 표기법, 언중에게 묻다

- 중국어 파열음을 중심으로

梁春基*

目 录

1. 들어가기:연구의의
2. 연구현황
 - 2.1 중국어 한글 표기법 관련 연구현황
 - 2.2 한·중 파열음 관련 연구현황
3. 실험과정 및 결과
4. 나가기:논의 및 결론

1. 들어가기:연구의의

한국과 중국은 국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새 역사를 쓰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동안 다방면의 교류가 있어 왔으며 그러한 교류의 바탕에 언어의 빈번한 접촉이 있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중이 1992년 8월 24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로 만 20년을 맞았다. 한·중의 교류가 잦아지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중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쏟아내게 되면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우리말로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고 그에 따라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한 관심이 점차 대두되었다. 한·중수교가 맺어지기 몇 년 전인 1986년에 문교부는 국립국어원¹⁾의 <한국어문규정집>에 속한 <외래어표기법>²⁾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 釜山外國語大學校 中國語學部 招聘教授

1991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2년 6월 28일까지 매년 몇 차례씩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다 보니, 각계의 사용자들이 정부의 <외래어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글쓰는 이 각자의 판단에 맞추어 표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인명과 지명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기가 범람하게 되었고, 독자들도 과연 어떤 표기가 정확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반영하는 일례로, 일부에서는 “외국어의 음운을 우리말 자모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말의 맞춤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세우며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자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0년 2월 3일에는 조선일보에서 “외국어 표기 한글 새 문자論爭, 여러분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³⁾ 외국어의 종류 또는 찬반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학계 및 일반인들의 외래어 표기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 중국어학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적지 않은 관련 학계 연구자들이 정부의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필자는 최근 20여년간 중국어 한글표기법과 관련한 일련의 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

1) 1984.05.10 국어연구소가 학술원 산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설립된 후 1991년에 이르러서야 문화부 소속의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개원하였다.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index.jsp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참조.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전신인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1939년에 기초하여 1941년에 공포되었다.

3) 조선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조선닷컴 참조. www.chosun.com “찬반토론” 페이지에는 게시시간이 경과하여 직접 검색은 불가하였으나 국립국어연구원의 “질의응답” 페이지에 실린 글 중 작성자 이의재의 “외래어 표기법을 진지하게 얘기합시다”에서 인용.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free_view.jsp?idx=16137

작 그 표기법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일반 언중들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중국어를 접해보고 중국어 발음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한글 표기를 하지 않고 한자를 그대로 써놓아도 중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중국어로 읽어낼 수 있다. 또한 한글표기가 통일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표기가 중국어의 어느 음을 나타내고 있구나” 정도는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다수의 언중들은 오로지 누군가가 표기해놓은 한글표기만을 보고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각종 자료에 처음 한글로 표기하게 되는 사람은, 중국어를 알고 그것이 중국의 어디쯤에 있는 지명인지 혹은 어떤 한자를 사용하는 이름인지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오로지 그 한글 표기만을 의지하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의 낯선 발음을 인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과정에서 표기법 자체의 음성학적 정확성이나 사용상의 편의성을 두고 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과정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 필자는 그와 더불어, 그 표기법의 주된 수혜자 혹은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언중의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본고는 현재까지 중국어 한글표기법과 관련한 일련의 논쟁들 중 먼저 중국어 음운체계 중 가장 먼저 등장하고, 학자들의 논쟁에서도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중국어 파열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일반 언중은 중국어 파열음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실제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 언중의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인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현상인 언어학적 지각적 범주화⁴⁾에 의하여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을 인지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4) 지각적 범주화란 개인 혹은 공통적인 지각 인자를 갖고 있는 집단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각종 감각에 의한 결과들을 이미 자신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연관성있는 인지 범주 안에 있는 정보들과 관련시켜 일반화하거나 차별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 지각 면에서의 지각적 범주화는, 낯선 음운을 새로 접할 때,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 습득되거나 학습된 음운 범주 안에 있는, 같거나 비슷한 음운과 동일시하거나

경향성을 띠리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물론 표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학자들의 깊은 학문적 고찰을 거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표기법의 실용화를 위하여 그 과정의 한편에 본고와 후속작업에서 진행하게 될 이러한 유형의 조사결과가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2. 연구현황

2.1 중국어 한글 표기법 관련 연구현황

2.1.1 <외래어표기법>⁵⁾의 중국어 파열음과 관련한 문제 제기

국립국어원에서는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처음 제정한 이래 1986년 <외래어 표기법>⁶⁾을 발표하였다. 그 중 중국어 한글 표기법과 관련하여 표기법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인 제4장의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부분을 제외하고 음운 자체의 표기와 관련하여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제1장 표기의 원칙이다. 아래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실었다.

제1장 표기의 원칙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나, 둘 이상의 음운 간의 차이점으로 인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5) 이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지칭하는데, 본고에서는 집필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립국어원의” 혹은 “정부의”와 같은 제정기관을 표시하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외래어 표기법>만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6) <외래어 표기법>은 제1장 표기의 원칙, 제2장 표기일람표, 제3장 표기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제2장은 19종의 외국어와 한글을 대조한 19개의 표로 구성되며, 제3장은 21종 외국어의 표기 세칙을 명시하여 두었다.

-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래어표기법>의 기본원칙은 “표기의 경제성”이다. 최대한 적은 수의 음소를 사용하여 표기함으로써 사용자의 혼동을 줄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1장 제1항에서 제한한 국어의 현용 24자모라는 것은 된소리를 제외한 자음 14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와 모음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말하는데⁷⁾, 이는 제4항과도 연관되어 중국어의 파열음 성모 중에서 한국어의 된소리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 자음들을 표기할 때도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굳이 실제 음가와 거리가 있는 표기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제2장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중국어 한어병음 “z”와 “s”에 해당하는 치조음은 “ㅈ”과 “ㅅ”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들음들은 파열음이 아니기에 제1장 제4항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왜 굳이 파열음에는 된소리 자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글에는 위에 열거한 10개 모음 자모 외에 다른 복모음 자모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외래어를 표기할 때 그 복모음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그리고 제2장 표5 중국어의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⁸⁾에서는 왜 해당 원칙을 위배하고 “웨이(wei), 웡(weng)”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지도 합당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2항의 1음운 1기호 원칙도 음절수를 최소화하여 간결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7) “국어의 현용 24자모”라는 범위 안에는 된소리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과 포함되지 않은 이중모음(ㅑ, ㅓ, ㅕ, ㅛ, ㅜ, ㅠ, ㅡ, ㅣ)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24자모와 미포함 자모들은 대체될 수 없는 별개 음운이다. 예를 들어 ㄱ은 그 모양만 ㄱ이 두 개 합쳐진 모양일 뿐 그 음가는 ㄱ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변별력을 갖춘 완전한 하나의 전혀 다른 자모이기 때문이다.

8) <외래어 표기법>제2장의 표5는 중국어의 주음부호와 한어병음자모, 웨이드식 자모와 한글자모를 병렬하여 명시하였다. 표의 크기가 커서 본고에서는 전체를 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본문에서 예시로 든 몇 개의 자모만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1기호로 표기하기 힘든 중국어의 하향 이중모음⁹⁾ 혹은 삼중모음의 경우에는 표기의 어려움이 따른다. <외래어 표기법>의 이러한 문제점은 현실적인 운용상의 혼동을 초래하고 각계 관련분야 학자들의 끊임없는 개선 제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볼 중국어 파열음 /p, t, k/¹⁰⁾는 한글로 표기할 때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따라 “ㅍ, ㅊ, ㅋ”만으로 표기할 것인가 또는 “ㅍ/ㅑ, ㅊ/ㅓ, ㅋ/ㅕ”을 모두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각 연구자들의 제안 내용들은 아래 2.1.2에 밝혀 두었다.

2.1.2 중국어 한글 표기법 관련 연구현황

정부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공표하기 전인 1983년에 김용옥(1983)은 이미 <최영애·김용옥 표기법>을 내놓았고, 그 후로 많은 관련학계 연구자들이 중국어 한글 표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과 각자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주요 학술지¹¹⁾에 발표된 중국어 한글 표기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한자음 표기와 원지음 표기의 대립과 원지음 표기 원칙을 전제로 한 구체적

주음부호	한어병음	웨이드식	한글자모
ㄩㄝ	ye (ie)	yeh (ieh)	예
ㄩㄢ	yan (ian)	yan (ian)	엔
ㄨㄟ	wei (ui)	wei (uei, ui)	웨이(우이)
ㄨㄥ	weng (ong)	weng (ung)	웡(웅)

- 9)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개구도가 작은 모음에서 개구도가 큰 모음으로 연결되는 상향식 이중모음만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어의 이중모음 또는 삼중모음은 상향식 외에 하향식 이중모음 혹은 하향식 이중모음을 포함한 삼중모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야, 여, 요, 유, 웨, 와” 등은 모두 상향식 이중모음에 속하며, 중국어에는 상향식 이중모음 [ia]와 같은 음소로 구성되었으나 하향식 이중모음인 [ai]도 존재한다.
- 10)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파열음에 대한 한글 자모 표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논리 전개의 용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중국어 파열음은 음소기호 //로 표시하고 한국어의 파열음은 한글 자모를 사용하기로 한다.
- 11) 한국연구재단의 중국어학 관련 등재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 20종을 참조하였다.

인 표기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한자음 표기 원칙과 원지음 표기 원칙의 대립문제이다. 한국인은 한글 창제 이전에 한자를 받아들여 사용해왔고, 오랜 기간 한국인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말에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현재 까지도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한자를 받아들일 당시에는 중국의 한자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나, 세월이 흘러 중국 본토의 한자음과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음은 점차 달라져 현대의 한국 한자음과 중국의 표준 중국어 발음은 같은 음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이 쉽게 인지되지 않을 만큼 큰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자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어 현대의 중국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할 때도 현대 중국 표준음에 상관 없이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관례였었다. 그러나 중국 어학계의 여러 학자들이 원지음 표기 원칙을 주장하면서 종래의 한자음 표기원칙을 고수하는 학자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를 몇 편 살펴보면, 맹주억(2009)은 원문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중국어 한글 표기의 선결과제로서 현재 우리가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데 나타나는 혼란상, 한글 표기 대상의 불확실성을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과 바람직한 중국어 한글 표기의 원칙과 방안을 위한 토대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양세욱(2009)은 중국어 한글 표기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민족주의에 편승한 감정의 토로와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부분적인 논거 제시를 지양하고, 한자음 표기와 한자 표기를 구분하며, 외래어 표기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엄익상(2009.02)은 원지음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명시하고 원지음주의와 한자음 표기 주장의 논쟁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두 주장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더 타당한 방안을 수용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또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의 발음표기법이 아니기에 원지음과 같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현행 방안이 좀더 나은 체계성과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중국어 발음과의 괴리 현상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엄익상(2009.06)은 한자음 표기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들의 불합리성을 들어 한자음 표기의 부당성을 다시 지적하는 한편, 글쓰기의 일관성 유지와 문자로서의 한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지음 표기를 주장하였다. 조관희(2009)에서는 중국어 원음표기의 당위성을 거론하면서 현재 우리의 중국학 연구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중국의 문화유산을 상대화하고 대상화하는 작업이며, 중국어의 한글 표기 문제는 우리의 중국학 연구가 주체성을 확립하고 실존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처음부터 승패의 여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언중들이 어느 쪽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사용하느냐의 결정이 존재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월(2010)은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30%이상이 중국 인명과 지명을 표기할 때 원지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한글 현지음 표기로 된 자신의 한국 이름을 선호하는 조사 결과 등을 예로 들어 중국어 고유명사의 원지음 표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다음은 원지음주의의 관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중국어 한글 표기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할 때, 표기법 제정에 있어 정확성 또는 변별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편의성 또는 보급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들고, 연구자 각자의 논거에 따라 개정안을 발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확성이나 변별성을 우선으로 하면, 원지음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사용 음절수가 많아져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편의성과 보급성을 우선으로 하면, 음절수가 간단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원래의 음가와 멀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관희(2009)에서 거론했듯이 중국어 원지음의 한글 표기는 음운론적 차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같고 다른 점을 대비하는 가운데 양쪽의 특성을 모두 살리는 선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지음 주의의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표기법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용옥(1983)의

최영애·김용옥 표기법¹²⁾, 엄익상(1996)의 개선안과 엄익상(2002)의 재수정안, 김영만(2003)의 주음부호를 기초로 한 한글 표기법, 강혜근(2008)의 중국어 한글 표기 방안, 도혜숙·배은한·장호득(2007)의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등이 있다. 한편, 현행 한글 자모의 형태와 합철법을 변형하여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안을 만들고 중국어 발음 교육에 응용할 것을 제안한 맹주억(2000)의 중국어 교육용 한글 표음 방안, 구체적인 표기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어 한글 표기에 洪武正韻의 31자모체계에 있는 경순음 자모를 사용하는 등의 예를 들어 한글자모의 형태나 수, 체계 등에 지나친 변화나 수정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외국어 표기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김태성(2001) 등 현행 한글 자모 자체에 변형을 가하여 외국어를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연구도 있었다.

그 외에 중국어와 관련한 정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개선방법을 제안한 연구로 임동석(2000), 崔金丹(2003, 2004), 장호득(2003) 등이 있다.

본고는 위에 열거한 중국어 한글 표기와 관련한 여러 연구와 제안 중에서 중국어의 파열음 부분의 한글 표기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언중의 의견을 묻고자 하였다. 중국어의 파열음 /p, t, k/를 한국어의 파열음 자모 “ㅍ/ㅑ”, “ㄷ/ㄸ”, “ㄱ/ㄲ”를 이용하여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관련학계 여러 연구자들의 방안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중국어 파열음 한글표기 방안

중국어파열음	정부안 ¹³⁾	CK안	엄익상1안	엄익상2안	김영만안	강혜근안	도혜숙 외
/p/	ㅍ	ㅑ	ㅑ/ㅍ	ㅑ/ㅍ	ㅍ	ㅑ	ㅑ/ㅍ
/t/	ㄷ	ㄸ	ㄸ/ㄷ	ㄸ/ㄷ	ㄷ	ㄸ	ㄸ/ㄷ
/k/	ㄱ	ㄲ	ㄲ/ㄱ	ㄲ/ㄱ	ㄱ	ㄲ	ㄲ/ㄱ

12) 이 표기법은 1983에 발표된 것으로서 정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한 개정안은 아니지만, 원지음 주의에 입각한 표기법이기이기에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파열음에 평음과 경음의 구별이 없는 중국어와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는 한국어의 파열음 체계가 상이하어 각 연구자들의 한글 표기 방안에 이견이 존재한다. 원음을 표기하는 데 있어 정확성 또는 변별성을 중시한 연구자는 성조의 다름에 따라 “ㄷ/ㄸ/ㄱ”과 “ㅃ/ㄸ/ㄱ”의 병용방안을 제안하였고, 사용상의 편의성 또는 보급성을 중시한 연구자는 비록 청각적으로 원음과 거리가 있더라도 “ㄷ/ㄸ/ㄱ” 혹은 “ㅃ/ㄸ/ㄱ”으로 통일하자라는 제안을 하였다. “ㄷ/ㄸ/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 안으로는 정부안과 김영만(2003)이 있고, “ㅃ/ㄸ/ㄱ”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한 안으로는 CK안(1983)과 강혜근(2008)이 있다. 병용방안을 제시한 엄익상¹⁾·2)에서는 중국어 성모가 경성일 경우만 평음으로 표기하고 기타 파열음 성모는 모두 한글의 경음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혜숙 외에서는 중국어의 음평과 거성 파열음 성모는 경음으로, 양평과 상성, 그리고 경성 파열음 성모는 평음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일안이나 병용안 모두 정확성/변별성 혹은 편의성/보급성이라는 양립하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언중의 지지를 얻은 정확한 중국어 한글 표기법을 정착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조정 및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한·중 파열음 관련 연구현황

위에 언급한 중국어 한글 표기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외에 음성학 혹은 음운학적인 관점에서 중국어 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의 대응관계에 관한 음성학적 대조 분석 결과는 현재까지 여러 연구자료가 발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편의 연구를 아래에 소개하였다.

全廣鎭(1999)에서는 중국어 자음을 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경구개음 등

13) 표1에서 정부안은 1986년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을, CK안은 <최영애·김용옥 중국어 한글 표기법>을 각각 지칭하며, 도혜숙 외는 도혜숙·배은한·장호득(2007)의 표기안을 지칭한다.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청각적 유사성을 지닌 한국어의 자음과 대비하였다. 그 중 순음계열 파열음인 /p/의 비강세 음절에서의 변이음 [b]와 강세음절에서의 변이음 [p=j], [p=], [p=w]와 /t/의 변이음인 [bj], [b̥w], [b]과 /m/의 변이음인 [p=], [p=j], [p=w], [p=u]을 대조하고, 치조음계열 파열음인 /t/의 비강세 음절에서의 변이음 [d]와 강세음절에서의 변이음 [t=], [t=j], [t=w]와 /c/의 변이음인 [d], [dj], [dw], [du], /t/의 변이음 [t=], [t=j], [t=w], [t=u]를 대조하고, 연구개음계열 파열음인 /k/의 비강세 음절에서의 변이음인 [g]와 강세음절에서의 변이음 [k=], [k=w]와 /ɣ/의 변이음인 [g], [gw], [ɣ], [ɣu], /ɣ/의 변이음인 [k=w], [k=], [c=], [c=u]을 대조하면서, 중국어 파열음과 한국어 파열음의 유사성을 음성학적인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그 중 비강세음절은 경성일 때만 출현하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세음절이었을 때 중국어의 /p, t, k/는 한국어의 경음과 동일한 변이음의 수가 많아 그 실제 발음이 상당히 근접함을 증명하였다. 다만 /k/과 /ɣ/은 변이음의 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중국어 교화에 응용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梁春基(2008)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각 목표어의 파열음 습득 양상을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모국어와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는데, 제3장 “중국어와 한국어의 파열음 습득 연구” 부분에서 VOT(성대진동시작시간, Voice Onset Time)¹⁴⁾, GAP(조음폐쇄구간, closure duration)¹⁵⁾의 길이, 그리고 VOT부분의 강세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먼저 한·중 파열음을 대조하고 한국인이 중국어 파열음을 습득할 때의 한국어의 파열음 자질의 전이현상과 중국인이 한국어 파열음을 습득할 때의 중국어

14) 파열음 중 무성폐쇄음의 조음 과정 중, 자음의 장애가 극복되고 성대가 개방된 후 후행하는 모음을 위해 성대가 진동하는 시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음성학에서 유기음과 무기음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로 이용되는 지표이다. 필자 주.

15) 선행음절이 끝나고 후행음절의 조음이 시작되기 전의 공백 시간을 의미한다. 파형도에서는 선행음절의 성대 진동 파형이 끝난 지점에서 후행 음절의 자음 형성을 위한 파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어두 자음의 발생 시 성대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단서로 이용된다. 필자 주.

과열음 자질의 전이현상을 규명하였다. 실험 결과, VOT와 GAP에서 한국어의 평음 과열음인 /ㅂ, ㄷ, ㄱ/보다 경음 과열음인 /ㅃ, ㄸ, ㄲ/이 더 중국어의 과열음 /p, t, k/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고, VOT부분의 강세는 한국어 경음 과열음>중국어 과열음>한국어 평음 과열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梁春基(2008)의 연구에서 한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목표어의 과열음 습득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연구개과열음(舌根音)의 습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목표어의 과열음 중 연구개과열음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全廣鎭(1999)의 연구에서 /k/과 /ㄱ/은 변이음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관찰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피실험자의 모국어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한·중 과열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 연구는 맹주억·권영실(2007)의 세 편의 연구가 있다. 맹주억·권영실은 한국어 /ㅂ, ㅃ/과 중국어 /p/, 한국어 /ㄷ, ㄸ/과 중국어 /t/, 한국어 /ㄱ, ㄲ/과 중국어 /k/를 VOT, 음높이, 음길이, 음세기로 대조 분석하였다. VOT를 대조한 결과, 한국어의 경음 /ㅃ/이 평음 /ㅂ/보다 중국어의 /p/와 유사하고, 한국어의 경음 /ㄸ/이 평음 /ㄷ/보다 더 중국어의 /t/와 유사하며, 한국어의 경음 /ㄲ/이 평음 /ㄱ/보다 더 중국어의 /k/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음높이를 대조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음절 시작부분의 음높이 양상과 중국어 4개 성조의 대립음고에 의한 음절 시작부분의 음높이 양상을 대조한 결과, 한국어의 경음은 중국어의 음평과 거성 음절의 성모와, 한국어의 평음은 양평과 상성 음절과 유사한 음높이 양상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음길이와 음세기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경음은 중국어의 거성과, 한국어의 평음은 중국어의 상성과 유사한 음향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맹주억·권영실의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 과열음은 VOT수치에서는 한국어의 경음 과열음 /ㅃ, ㄸ, ㄲ/이 중국어의 해당 위치 과열음 /p, t, k/와 가장 유사하고, 한국어의 평음·경음과 중국어의 성모는 초분절음 차원에서 일정한 대응 양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평음과 경음은 음높이, 음길이,

음세기에서 모두 이원대립을 형성하는데, 평음/ㅂ, ㄷ, ㄱ/은 각각 경음/ㅃ, ㄸ, ㄲ/에 비해 낮고, 길고, 약한 특징을 갖으며, 이는 중국어 파열음 성모 중 특히 상성과 거성에 각각 부합되는 음향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k/의 음세기는 /p, t/와는 약간 달리 음평, 양평, 거성이 비슷하며, 상성이 강약 대립양상을 보인다. 맹주역·권영실의 한·중 파열음 대조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 각 6명으로 구성된 실험대상자의 모국어 파열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순수하게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열음의 음성학적 수치를 대조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중국어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고찰하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맹주역·권영실(2008)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에 대하여 현대 표준중국어에서 /p, t, k/를 성모로 하는 음절이 음평과 양평으로 발음될 때 음절시작부분의 피치¹⁶⁾ 값에 변화를 주어 성조조작 전과 후의 성모 지각 양상을 선택형과 전사형 설문 방식으로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한국인이 중국어 파열음 성모를 평음과 경음으로 지각하는 데 있어 중국어 음절의 시작부분 음높이와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연음성에서 음평은 경음으로, 양평은 평음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시작부분 음높이를 고음으로 높이는 조작을 가하자, 자연음성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음절의 출현위치, 성모의 종류, 설문지 유형은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파열음 지각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관찰결과도 언급하고 있다. 맹주역·권영실(2008)의 연구는 한국인이 중국어 파열음 성모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음높이의 기여도가 결정적이며, 일정한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인 맹주역·권영실(2007)의 일련의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있다. 맹주역·권영실(2008)은 한국인의 중국어 파열음에 대한 지각양상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연구방법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대상자가 중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파열음에 대한 지각양상 연구라는 점과 연구 목적이 한

16) pitch. 음성학 용어로서 복합음파의 가장 낮은 주파수인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말소리의 음높이 변화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단위는 Hz(헤르쯔)를 사용한다.

국인 학습자의 평음과 경음 구분 능력을 중국어 성조 구분에 응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어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을 실험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구 목적이 중국어 한글 표기체계 수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표본조사의 성격을 띠는 본고와는 구별된다 하겠다.

3. 연구방법

3.1 실험과정

3.1.1 실험설계

본고는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중국어의 네 가지 성조와 경성으로 구분된 파열음을 포함한 2음절 단어를 듣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 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청각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두 200부의 설문지를 경기, 광주, 부산의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전혀 없는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 배포한 후 청각실험 후 선택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정보 누락 또는 불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외하고 총30문항을 모두 성실하게 답변한 총 156명의 답변결과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는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의 성별 및 연령대별 인원 분포¹⁷⁾이다.

청각인지실험과정은, 중국어의 양순·치조·연구개¹⁸⁾파열음 /p, t, k/를 포

17) 피실험자는 경기청계 덕장 초등학교 고학년학생 19명, 광주 문화중학교 1학년 학생 49명, 광주 동강대학교 1-2학년 학생 43명, 부산동명대학교 1-2학년 학생 24명,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21명이 참가하였다.

18) 조음위치를 지칭하는 용어인 양순·치조·연구개는 중국 음운학 혹은 음성학 용어로 각각 雙脣, 舌尖, 舌根이라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음운학 및 음성학계에서 쓰이는 용어인 양순·치조·연구개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1. 피실험자 성별 및 인원 분포

성 별	N(%)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계
남 자	10(6.41)	36(23.08)	22(14.10)	68(43.59)
여 자	9(5.77)	34(21.79)	45(28.85)	88(56.41)
계	19(12.18)	70(44.87)	67(42.95)	156(100.0)

합하는 음평·양평·상성·거성과 경성의 2음절 단어가 제1음절과 제2음절에 각각 무순서로 출현하는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한 문항당 한국어의 평음 “ㄴ, ㄷ, ㄱ”과 경음 “ㄴ, ㄷ, ㄱ”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항목 중 녹음의 소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표기항을 설문지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보고는 맹주역·권영실(2008)에서 음절의 출현위치가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파열음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후행음절에만 출현하는 경성을 제외한, 음평·양평·상성·거성의 파열음 음절을 가진 단어에서는 파열음 음절의 출현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전체 설문지에서 동일 성조의 동일 파열음을 두 번씩 출현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실험대상인 파열음 음절 외의 음절의 성모는 파열음 이외의 다른 성모를 사용하고 한 문항의 두 선택항에 동일하게 표기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출현시 경음과 평음의 출현 위치를 교차시켜 선택 시 기타 변수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도록 하여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통계처리 시에는 두 결과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설문지는 표2와 같고, 실제 실험 시에는 중국어 단어를 제시하지 않고 선택항만을 제공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순서를 무작위로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같은 의도의 문항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성실한 답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음성자료는 다년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교재의 예문을 녹음한 경험이 있는 36세의 여성 중국인 표준어 사용자가 2011년 10월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어학교재 녹음실에서 녹음한 wave파일을 사용하였다.

표 3. 한국인의 중국어 파열음 청각인지 설문지

파열음	성조	첫 번째 출현 단어		두 번째 출현 단어	
		단어	선택항	단어	선택항
b/p/	음평	八月	① 바위에 ② 빠위에	網巴	① 왕빠 ② 왕바
	양평	級別	① 지비에 ② 지빠에	博士	① 뽀스 ② 보스
	상성	靶子	① 바즈 ② 빠즈	資本	① 썸뽀 ② 썸뽀
	거성	爸媽	① 바마 ② 빠마	全部	① 취엔뽀 ② 취엔부
	경성	去吧	① 취바 ② 취빠	蘿卜	① 루어뽀 ② 루어버
d/t/	음평	答應	① 다잉 ② 따잉	釘子	① 땡즈 ② 땡즈
	양평	發達	① 파다 ② 파따	閱讀	① 위에뚜 ② 위에두
	상성	打字	① 다쯔 ② 따쯔	詞典	① 츠땡엔 ② 츠디엔
	거성	大連	① 다리엔 ② 따리엔	地方	① 띠팡 ② 디팡
	경성	好的	① 하오더 ② 하오떠	忌妒	① 지뚜 ② 지두
g/k/	음평	高級	① 가오지 ② 까오지	哥妹	① 꺼메이 ② 거메이
	양평	革命	① 거밍 ② 꺼밍	中國	① 쑹꾸어 ② 쑹구어
	상성	如果	① 루구어 ② 루꾸어	稿子	① 까오즈 ② 가오즈
	거성	個人	① 거런 ② 꺼런	習慣	① 시판 ② 시판
	경성	那個	① 나거 ② 나꺼	每個 ¹⁹⁾	① 메이꺼 ② 메이거

3.1.2 통계처리

청각인지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설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EXCEL)을 이용하여 코딩과정을 거친 후 통계 프로그램 SAS 9.12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문항 내 항목 간 빈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²⁰⁾

19) 중국어 파열음 /k/는 경성음절에 쓰이는 경우가 극히 적어 부득이 2회 모두 個를 사용하고, 다른 성모를 가진 선행 음절과 조합하였다.

20) 카이스퀘어(χ^2) 검증은 문항 내 항목 간 빈도 차이가 유의할 만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방법이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을 .05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통계치 P 가 0.05이하이면 두 항목은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3.2 실험결과

3.2.1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의 청각인지 차이 비교

표 4.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 음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p1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ㅍ	1	0.64	1	152.02	<.0001
ㅃ	155	99.36			

<표 4>²¹⁾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의 음평 성조를 가진 양순무기파열음 /p/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어의 “ㅍ”과 더 유사하다고 응답한 표본은 122(0.64%)인 반면, “ㅃ”과 더 유사하다고 답한 표본은 155(99.36%)로 피실험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어의 음평양순무기파열음 /p/를 “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5.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양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p2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ㅍ	40	25.64	1	37.02	<.0001
ㅃ	116	74.36			

<표 5>는 중국어의 양평 성조를 가진 양순무기파열음 /p/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ㅍ”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40(25.64%)인 반면,

21) 통계처리에서 통계명령어를 기술할 때 컴퓨터 언어의 식별문제로 각 성조는 음평을 1, 양평을 2, 상성을 3, 거성을 4, 경성을 5로 표기하였다. 이후 통계수치표에서도 동일한 표기규칙을 따른다.

22) 본고에서는 동일 파열음에 대해 2회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숫자는 실험참가자 수 156의 배수인 312개의 답변표본을 다시 2로 나눈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1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동일인 1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ㅃ”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16(74.36%)로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중국어의 양평양순무기파열음 /p/를 “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6.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상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p3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ㅂ	26	16.67	1	69.33	<.0001
ㅃ	130	83.33			

<표 6>은 중국어의 상성 성조를 가진 양순무기파열음 /p/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ㅂ”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26(16.67%)인 반면, “ㅃ”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30(83.33%)으로 피실험자의 80% 이상이 중국어의 상성양순무기파열음 /p/가 한국어의 “ㅃ”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7.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 거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p4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ㅂ	1	0.64	1	152.02	<.0001
ㅃ	155	99.36			

<표 7>은 중국어의 거성양순무기파열음 /p/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ㅂ”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0.64%)에 불과한 반면, “ㅃ”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55(99.36%)로 피실험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어의 거성양순무기파열음 /p/를 “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8. 중국어 양순무기파열음 /p/ 경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p5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ㅍ	133	85.26	1	77.56	<.0001
ㅂ	23	14.74			

<표 8>은 중국어의 경성무기파열음 /p/의 인식 차이 비교결과이며, 한국어의 “ㅍ”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33(85.26%), “ㅂ”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23(14.74%)으로 중국어의 경성양순무기파열음 /p/는 음평·양평·상성·거성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한국어의 “ㅍ”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2.2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의 청각인지 차이 비교

표 9.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 음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t1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ㄷ	23	14.74	1	134.10	<.0001
ㄸ	123	85.26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의 음평 성조를 가진 치조무기파열음 /t/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고 응답한 표본은 23(14.74%)인 반면, “ㄸ”과 더 유사하다고 답한 표본은 123(85.26%)로 피실험자의 85% 이상이 중국어의 음평치조무기파열음 /t/를 “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0.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 양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t2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ㄷ	30	19.23	1	59.08	<.0001
ㄸ	126	80.77			

<표 10>은 중국어의 양평 성조를 가진 치조무기파열음 /t/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30(19.23%)이고, “ㄸ”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26(80.77%)로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중국어의 양평치조무기파열음 /t/를 “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1.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 상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t3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ㄷ	24	15.48	1	73.86	<.0001
ㄸ	132	84.52			

<표 11>은 중국어의 상성 성조를 가진 치조무기파열음 /t/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24(15.48%)인 반면, “ㄸ”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32(84.52%)으로 피실험자의 84% 이상이 중국어의 상성치조무기파열음 /t/가 한국어의 “ㄸ”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표 12.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 거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t4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ㄷ	2	1.28	1	148.10	<.0001
ㄸ	154	98.72			

<표 12>는 중국어의 거성치조무기파열음 /t/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2(1.28%)에 불과한 반면, “ㄸ”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54(98.72%)로 피실험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어의 거성치조무기파열음 /t/를 “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χ^2)동

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13. 중국어 치조무기파열음 /t/ 경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t5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ㄷ	152	97.44	1	140.41	<.0001
ㄸ	4	2.56			

<표 13>은 중국어의 경성치조무기파열음 /t/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52(97.44%), “ㄸ”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4(2.56%)으로 중국어의 경성치조무기파열음 /t/는 음평·양평·상성·거성의 결과와는 상반되게 한국어의 “ㄷ”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3.2.3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의 청각인지 차이 비교

표 14.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 음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k1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X^2)	P
ㄱ	6	3.85	1	132.92	<.0001
ㄲ	150	96.15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의 음평연구개무기파열음 /k/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고 응답한 표본은 6(3.85%)인 반면, “ㄲ”과 더 유사하다고 답한 표본은 150(96.15%)로 피실험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어의 음평연구개무기파열음 /k/를 한국어의 “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15.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 양평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k2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ㄱ	61	39.10	1	7.41	0.0065
ㄱ1	95	60.90			

<표 15>는 중국어의 양평 성조를 가진 연구개무기파열음 /k/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61(39.10%)인 반면, “ㄱ1”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95(60.90%)로, 중국어의 양평연구개무기파열음 /k/가 “ㄱ”보다는 “ㄱ1”에 가깝다고 답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연구개무기파열음의 답변분포는 약 4 : 6으로 양순과 치조파열음 및 다른 성조값을 지닌 연구개무기파열음의 답변분포보다는 한국어 경음과 평음의 선택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여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여타 통계치와 마찬가지로 역시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5$).

표 16.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 상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k3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ㄱ	130	83.33	1	48.00	<.0001
ㄱ1	26	16.67			

<표 16>은 중국어의 상성 성조값을 가진 연구개무기파열음 /k/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30(83.33%)인 반면, “ㄱ1”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26(16.67%)으로 피실험자의 83% 이상이 중국어의 상성연구개무기파열음 /k/가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같은 상성성조를 가진 양순무기파열음 /p/과 치조무기파열음 /t/와는 상반되는 인지결과인데, 그 원인이 양순음과 치조음 그리고 연구개음의 서로 다른 조음위치와 그로 인한 조음방법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인지 녹음자의 발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그 외의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는 음성학·음운학적인 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는 향후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에 대한 한국어 파열음의 인지차이 실험에서도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17.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 거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k4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ㄱ	11	7.05	1	115.10	<.0001
ㄱ	145	92.95			

<표 17>은 중국어의 거성연구개무기파열음 /k/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1(7.05%)이었고,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45(92.95%)로 피실험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어의 거성연구개무기파열음 /k/를 “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χ^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표 18. 중국어 연구개무기파열음 /k/ 거성의 청각인지 차이비교

k5	빈도	백분율	자유도(df)	카이제곱(χ^2)	P
ㄱ	138	88.46	1	92.30	<.0001
ㄱ	18	11.54			

<표 18>은 중국어의 경성연구개파열음 /k/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서,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38(88.46%), “ㄱ”과 더 유사하다는 답변은 18(11.54%)로 중국어의 경성연구개무기파열음 /k/는 음평·양평·거성연구개무기파열음의 청각인지결과와는 상반되고, 상성의 결과와는 동일

하게 한국어의 “ㄱ”과 더 유사하다고 답변하였다. 카이스퀘어(X^2)동질성 검증 결과는 두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본고의 중국어 양순·치조·연구개 무기파열음 /p, t, k/의 각 성조별 인식 차이 실험결과를 지금까지의 관련학계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全廣鎭(1999)에서는 표준 중국어의 비강세음절인 경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음평·양평·상성·거성의 파열음이 한국어의 경음 “ㅃ, ㅌ, ㄱ”과 유사한 변이음이 더 많아서 더 근접하다고 하였고, 梁春基(2008)에서도 음평·양평·상성·거성을 종합한 중국어 파열음의 VOT와 GAP수치가 한국어의 경음과 더 근접하다고 언급하여 본고의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全廣鎭(1999)에서는 중국어의 연구개파열음/k/와 한국어의 “ㄱ, ㄱ”은 변이음의 차이가 비교적 크므로 중국어 교학에 응용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고, 梁春基(2008)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목표어의 파열음 습득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연구개파열음의 습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관찰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연구개파열음이 변이음 대조와 습득난이도에서 특이할 만한 연구결과를 보이는 것은 본고의 실험결과에서 나타나는 양순음과 치조음과는 다른 청각인지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중 연구개파열음이 다른 조음위치에서의 파열음과 다른 습득 및 지각양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전문적인 언어학적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맹주역·권영실(2007)에서는 중국어 파열음의 VOT수치가 한국어의 경음에 더 가깝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본고의 실험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와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관련학자들의 개정방안들을 연관시켜 살펴보면, 본고의 상성연구개파열음의 청각인지결과를 제외한다면 엄익상1(1996)·엄익상2(2002)의 개정방안이 가장 본고의 실험결과와 근접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혜숙 외(2007)는 양평과 상성과 결합하는 중국어파열음을 한국어 경음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연구개

파열음을 제외한 양순과 치조 파열음의 양평과 상성도 모두 한국어 경음으로 인지하는 본고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CK안(1983)과 강혜근(2008)은 중국어 파열음을 성조에 관계없이 한국어 경음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표준 중국어에서 일정 정도의 의미변별작용을 하고 있는 경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변별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1986)과 김영만(2003)은 중국어 파열음을 성조에 관계없이 한국어 평음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부안<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원칙 중 제1장 제4항인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원칙에 부합하고, 표기체계의 경제성을 제고하며 사용상의 편의성과 보급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적합한 방안이라 여겨지나, 본고의 2.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없으므로 굳이 국어의 경음 자모 사용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본고의 실험결과에서는 상성연구개파열음이 같은 상성 성조값을 가진 양순·치조파열음의 청각인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언어의 표기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각 음운의 정확한 전사기능과 기타 음운과의 변별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표기의 일관성과 음운학적 체계성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중국어 파열음의 한글 표기에 관해서는 관련학계 연구자들의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되 예리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나가기: 논의와 결론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 중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관련학계 연구자들의 개정 제안을 살펴보는 한편, 논제가 되고 있는 중국어 음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언중의 의견을 묻고자 기획되었으며, 전체 음운체계 조사작업 중 일부인 중국어 파열음/p, t, k/에 관한 156명의 일반 언중

들의 청각인지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청각인지실험 결과, 한국인 일반인들 대다수가 중국어의 양순, 치조파열음 /p, t/의 음평, 양평, 상성, 거성 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어의 경음파열음 “ㅃ, ㄸ”로, 경성 조합에 대해서는 한국어의 평음파열음 “ㅈ, ㄷ”로 인지하였다. 중국어의 연구개파열음 /k/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어의 연구개파열음 /k/의 음평, 양평, 거성 조합은 한국어의 경음 연구개파열음 “ㄱ”으로, 상성과 경성 조합은 한국어의 평음 연구개파열음 “ㄴ”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훗날 정부 차원에서 중국어 한글 표기법을 개정할 때 전국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사의 답사작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 행해진 유형의 청각인지 실험결과는 물론 향후에 더 심도있는 연구와 관련학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중국어 음운체계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 언중들의 청각인지양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실험요원의 비전문성²³⁾과 조사작업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피실험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지역, 문화 수준, 방언의 영향 등의 변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성모의 청각적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서로 다른 운모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또한 녹음자를 한 명으로 선정하여 여러 중국인 발화자의 개인적인 발음 성향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은 본고의 미흡함으로 남아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성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주도 면밀한 실험 설계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후속 작업에서는 파열음 뿐만 아니라 학계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어의 기타 성모 및 운모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정 작업에 있어 표본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관련 학계 학자들의 열띤 논의와 함께 정부에 전달되어 정부 <외래어 표기법>의 중국어 한글 표기체계가 하루 빨리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개정되어 일반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23) 본고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자 1인이 모든 실험을 실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적용되어 쓰이기를 바란다. 나아가 한·중 교류와 관련한 소중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전달되도록 중국어 한글 표기법이 통일된 모습으로 일조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參考文獻

- 康惠根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표기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제50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8.06), 61-89.
- 김태성 「중국어 한글 표기법에 관하여」, 『중어중문학』 제27집(한국중어중문학회.2001), 167-190.
- 金榮晚 「중국어 한글 표기법 현황과 개선 방안」, 『중국어문논총』 제25권(중국어문연구회.2003), 105-125.
- 도혜숙 · 배은한 · 장호득 「중국어 한글 표기법 개선안」, 『중국학보』 제55집. (한국중국어학회.2007), 83-107.
- 맹주익 「중국어 한글 표기 개선의 선결과제」,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9호(한국중국어교육학회.2009), 1-12.
- _____ 「중국어 교육용 한글 표음 방안」, 『중국언어연구』 제11권(한국중국어학회.2000), 1-18.
- 맹주익 · 권영실,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연구-한국어 “ㅂ/ㅃ”과 중국어 “b”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35권(중국어문연구회.2007), 101-119.
- _____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연구-한국어 “ㄷ/ㄸ”과 중국어 “d”에 대하여」, 『중어중문학』 제41집(한국중어중문학회.2007), 81-104.
- _____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연구-한국어 “ㄱ/ㄲ”과 중국어 “g”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제25호(중국어문학회.2007), 499-523.
- _____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파열음에 대한 지각양상 연구」. 『중국학연구』 제44집(중국학연구회. 2008), 73-92.
- 소열녕 「韓國語와 中國語 破裂音의 實驗音聲學的 對比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宋之賢 「우리나라 漢字브랜드의 유형과 중국어 표기의 문제점」,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4.08), 219-244.
- 申雅莎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대하여-운모 부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6권(중국어문학회.1999), 83-108.

- 梁世旭 「다오위타이'와 '냐시터국빈관' 사이-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제57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9.08), 197-217.
- 梁春基, 『韓中學習者漢韓語音習得實驗研究』, 中國南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8.
- 엄익상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국어언어연구』 제4집(한국중국어언어학회, 1996), 39-84.
- _____ 「중국어 한글 표기법 재수정안」, 『중어중문학』 제31집(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111-135.
- _____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 발음 괴리의 문제」, 『중국어문학논집』 제54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9.02), 67-88.
- _____ 「중국어 외래어를 원지음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9.06), 265-279.
- 이영월 「중국어 인명 한글 표기의 현주소-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33집(한국중국어언어학회.2010), 315-335.
- 임동석 「중국어(漢語) 한글表記의 實際와 問題點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13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0), 5-33.
- 張皓得 「중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1집(중국어문논역학회.2003), 233-262.
- 全廣鎭 「중국어 자음의 한글 표기법에 대한 음성학적 대비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19집(1999), 347-375.
- 趙寬熙 「중국어 한글표기법 논의를 바라보는 한 시각-왜 '원음주의'인가」, 『중국어문학논집』 제58호(중국어문학연구회.2009.12), 379-392.
- 崔金丹 「한국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 기본원칙에 관한 소고-중국 유입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의 합당성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17집(한국중국어언어학회.2003), 579-613.
- 崔金丹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한 중국어 장애음의 한글표음 문제 재검토」, 『중국어언어연구』 제18집(한국중국어언어학회.2004), 321-339.

<Abstract>

The Chinese-Korean Marking System : The Perception of Korean People in
general (1)

Targeting the Chinese Plosive /p, t, k/

Yang, ChunGi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review the several revisions of Chinese-Korean marking systems made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auditory perception of the Chinese plosive /p/, /t/, and /k/ by 156 Korean people in general. The experimental process is that 156 participants had listened 30 disyllabic Chinese words, and selected one is regarded more similar to the sound between two Korean marking choices. Then, we did statistical treatment (X^2 investigation) and analysed the result.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Chinese bilabial, alveolar plosive /p, t/ with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tones as the Korean bilabial, alveolar tense plosive “ㅍ, ㅌ”, respectively, and perceived the Chinese plosive /p, t/ with the neutral tone as Korean lax plosive “ㅍ, ㅌ”.

In case of soft-palate plosive /k/,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Chinese soft-palate plosive /k/ with the first, second, fourth tone was recognized by Korean people in general as the Korean soft-palate tense plosive “ㄱ”; In contrast, the Chinese soft-palate plosive /k/ with the third tone and the neutral tone was recognized as the Korean soft-palate lax plosive “ㄱ”.

Key Words : Chinese-Korean marking system, Chinese plosive, Korean tense plosive, Korean lax plosive, auditory perception

투 고 일 : 2012. 9. 10. / 심 사 일 : 2012. 9. 19. ~ 2012. 10. 7. / 게재확정일 : 2012. 10. 10.